



은혜와 眞리교회 조용목목사

“누가복음 5장 12절~26절 강해 설교”

구역예배

- 성경: 누가복음 5장 12절~26절 강해 설교
- 찬송: 찬송가 98장(새찬송가 90장)

성령께서 이 시간 우리 각 사람에게 살았고 운동력 있는 말씀의 권능을 풍성하게 체험하게 하여 주시고 예수님을 아는 지식이 더 하게 하실 것을 확신합니다.

오늘은 누가복음 5장 12절에서 26절까지를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12절에서 1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예수께서 한 동네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문둥병 들린 사람이 있어 예수를 보고 엎드려 구하여 가로되 주여 원하시면 나를 깨끗케 하실 수 있나이 다 하니 예수께서 손을 내밀어 저에게 대시며 가라 사대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으라 하시니 문둥 병이 곧 떠나니라 예수께서 저를 경계하시되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몸을 보이고 또 네 깨끗케 됨을 인하여 모세의 명한 대로 예물을 드려 저희에게 증거하라 하셨더니 예수의 소문이 더욱 퍼지매 허다한 무리가 말씀도 듣고 자기 병도 나음을 얻고자 하여 모여 오되 예수는 물러가 사 한적한 곳에서 기도하시니라”

예수께서 어느 마을에 계실 때에 온 몸에 나병 들린 사람이 예수께로 와서 엎드려 구하기를 “주여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나이 다” 하였습니다. 주위 사람들이 흠칫 놀라 뒷걸음쳤을 것입니다. 그럴만한 이유가 있습니다. 고대사회에서 나병은 모든 질병 중에서 가장 무서운 것이었습니다. 신체적인 증상도 무서웠지만 인간사회에서 격리하고 버림받는 것이 더욱 견딜 수 없는 고통이 되었습니다. 구약성경 레위기 13장에 보면 나병에 감염된 환자는 자기 옷을 찢고 머리를 드러내며 입을 가리고 “부정하다, 부정하다”고 외쳐야 합니다. 감염된 날 동안 그는 늘 부정하므로 그는 진영 밖의 자기 거처에서 혼자 살아야 한다고 기록되었습니다. 나병환자가 다른 사람에게 근접하면 그 사람은 불결해진다고 율법에 규정되었습니다. 그러니 나병환자가 예수님께로 접근한 것은 파격적인 행동이었습니다.

이 나병환자의 태도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그가 가진 지식과 믿음이 확연하게 나타나 있습니다. 그는 예수님을 경외하였으며 병을 고치는 권능이 예수님께 있음을 알고 믿었습니다. 또한 예수님의 인자하심을 알고 믿었습니다. 그러기 때문에 예수님께로 나아가는 용기를 가질 수 있었던 것입니다. 나병환자가 예수님을 향하여 “주님께서 원하시면 저를 깨끗하게 하실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니 예수께

서 나병환자에게 손을 내밀어 접촉하였습니다. 율법을 초월하는 공물을 나타내셨습니다. 예수께서 “내가 원하노니 깨끗함을 받아라.”라고 응답하셨습니다. 누군가 그 나병 환자의 무례한 행동을 지적할 겨를도 없이 상황이 이처럼 빠르게 진행되었습니다. 예수께서 그에게 명령하시기를 “아무에게도 말하지 마라. 다만 가서 제사장에게 네 자신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하였습니다.

이 말씀은 병이 나았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그리고 또 하나의 교훈이 내포되어 있습니다. 모세의 율법에는 진 밖에 살고 있는 나병환자가 낮게 된 경우에는 마을에 들어가서 정상적인 사회생활을 하기 위하여 이행해야 하는 절차가 있습니다. 먼저 제사장에게 가서 치료된 것을 보이고 치유가 확인된 다음 제사장은 그에게 정결한 산 새 두 마리와 백향목, 홍색 실, 우슬초를 가져오게 하고, 새의 피를 그에게 일곱 번 뿌려 “그대는 이제 정결하다.”는 선언을 했습니다. 그런 후 자기 장막 밖에서 칠일을 거한 후 몸의 모든 털을 밀고 옷을 빨며 몸을 물로 씻은 다음, 제 팔 일째 되는 날에 제사장을 통해 제사를 드려야 했습니다. 예수께서 나병 환자를 치유하시고는 “병이 나은 것이 확실하니 후속 절차는 생략해도 된다.”라고 말씀하지 않으시고 “가서 제사장에게 네 자신을 보이고, 네가 깨끗해진 것이 그들에게 증거가 되도록 모세가 명령한 대로 예물을 드려라.” 하신 이유가 여기에 있습니다. 유대사회에서는 이런 절차를 거친 후에야 비로소 사회의 일원으로 정상적인 활동을 할 수 있었습니다. 그러므로 이런 절차를 이행하는 것이 자신과 타인을 위하여 유익한 것입니다. 신자는 교회가 정한 규례와 절차를 따라야 합니다. 교인 등록을 하고 여러 조직과 활동에 참여하여야 합니다. 그리하지 않는다고 신앙을 갖지 못하는 것은 아닙니다. 번거로울 수도 있지만 참여하므로 얻는 것이 많습니다.

예수님은 그 사람에게 “삼가 아무에게도 이르지 말라.” 하셨습니다. 나병환자를 예수님이 순식간에 완치시킨 사실이 널리 알려지는 것을 방지하려는 것입니다. 그릇된 메시아관을 가진 사람들이 이스라엘을 로마의 통치에서 벗어나게 하려고 예수님을 지도자로 옹립하려 할 것이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적적인 치유를 체험한 사람과 가족들은 입을 다물 수 없을 것이고 또한 현장에서 이를 본 사람들 역시 소문을 퍼트리지 않고는 배길 수 없었을 것입니다. 그로 인하여 사람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그러나 예수님은 한적한 곳으로 물러가서 기도하셨습니다. 아버지 하나님의 뜻과 정하신 때를 맞추어 행하시기 위함이었습니다. 성도는 사람들의 요구와 환호보다 하나님의 뜻을 좇아 행하기를 힘써야 합니다. 사람들의 요구와 환호에 부응하는 것이 하나님의 뜻에 상반될 수도 있기 때문입니다.

17절에서 26절까지 함께 읽겠습니다.

“하루는 가르치실 때에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앉았는데 병을 고치는 주의 능력이 예수와 함께 하더라 한 중풍병자를 사람들이 침상에 메고 와서 예수 앞에 들여 놓고자 하였으나 무리 때문에 메고 들어갈 길을 얻지 못한지라 지붕에 올라가 기와를 벗기고 병자를 침상 채 무리 가운데로 예수 앞에 달아내리니 예수께서 저희 믿음을 보시고 이르시되 이 사람이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시니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의논하여 가로되 이 참람한 말을 하는 자

가 누구뇨 오직 하나님 외에 누가 능히 죄를 사하겠느냐 예수께서 그 의논을 아시고 대답하여 가라 사대 너희 마음에 무슨 의논을 하느냐 네 죄 사함을 받았느니라 하는 말과 일어나 걸어가라 하는 말이 어느 것이 쉽겠느냐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사하는 권세가 있는 줄을 너희로 알게 하리라 하고 중풍병자에게 말씀하시되 내가 네게 이르노니 일어나 네 침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시니 사람이 저희 앞에서 곧 일어나 그 누웠던 것을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자기 집으로 돌아오니 모든 사람이 놀라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심히 두려워하여 가로되 오늘날 우리가 기이한 일을 보았다 하니라”

지금 읽은 이 사건은 마태복음 9장과 마가복음 2장에도 기록되어 있습니다. 이를 비교 종합하고, 거기에 현장감과 이해를 돕기 위하여 사건 정황에 약간의 상상을 가미하여 말씀하여 드리겠습니다. 예수님에 대한 소문은 그의 가르치심과 행하신 기사와 이적으로 인하여 널리 확산되어 갔습니다. 예수님이 순회여행을 끝마치고 가버나움으로 돌아오시자 사람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으로 모여들기 시작하더니 어느덧 문 앞까지 발 디딜 틈 없게 되었습니다. 용신할 수 없을 정도가 되었습니다. 사람들은 예수님의 입에서 흘러나오는 말씀을 놓치지 않고 들으려고 뻐뻐하게 자리를 잡았습니다. 뒤편이나 구석진 자리에 있는 사람은 고개를 잔뜩 내밀어 앞을 응시하고, 귀를 곤두세웠습니다.

그 때 들 것에 누운 사람을 운반하고 오는 사람들이 나타났습니다. 들것에 실려 있는 사람은 중풍병자였습니다. 그들이 예수님이 계신 집에 도달했을 때는 이미 사람들이 집 안팎을 가득 메운 뒤였습니다. 뒤늦게 오긴 했으나 사람들의 양해를 얻어내면 예수님 앞으로 들어갈 수 있으리라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실제로는 어렵도 없었습니다. “죄송합니다. 일찍 출발했으나 중풍환자를 들것에 뉘어 운반하느라고 지체되었습니다. 예수님 앞으로 데려 가도록 조금만 지나갈 틈을 내어 주세요.” “여보시오. 여기 앉은 사람들이 보이지 않아요? 무릎도 들이밀 수 없을 정도인데 어디로 들어가겠다는 거요.” “아니 병든 자가 어디 그 사람뿐 인줄 아세요. 우리도 다 피장 파장입니다. 늦게 왔으면 저 뒤쪽에 침상을 내려놓으세요.” 여기저기서 핀잔하는 소리가 났습니다. 더 사정해 보아야 본전도 못 찾을 지경이었습니다.

하지만 들 것을 운반하고 있는 그들은 서둘러 오지 못한 것을 후회하거나 사람들의 몰인정에 대해 투덜대지 아니했습니다. 그런 반응을 하면 상황을 호전시키는 데는 도움이 되지 않고 도리어 역효과가 날 뿐입니다. 만약 그 네 사람 중에 한 사람이 “도저히 안 되겠는걸. 그냥 돌아갑시다.”라고 주장하였다면 돌아가지 않을 수 없을 것입니다. 그런데 네 사람이 서로 쳐다보다가 누군가 말했습니다. “옳지, 좋은 생각이 있습니다. 침상을 지붕위로 올려서 지붕을 뚫고 예수님 앞으로 달아 내립시다.” 여기서 의견 일치로 본다는 것이 결코 쉬운 일이 아닐 것입니다. 중풍병자가 누워있는 침상을 지붕위로 운반하는 것이 간단한 문제가 아닙니다. 더욱이 남의 집 지붕을 헐면 그 집 주인이 내버려둘 리 만무할 것입니다. 만약 방해받기 전에 재빨리 뚫었다 해도 그 집을 수리해 주든가 매입하든가 해야 할 것입니다. 그뿐 아니라 지붕이 무너져 내릴 것 같은 위험으로 인하여 예수님이 그만 집 밖으로 나가버리시면 보통 낭패가 아닐 것입니다. 그러니 네 사람이 이런 문제점을 두고 토의했으면 부정적 결론을 내

리고 말았을 것입니다. 그런데 그들은 달리 반대 의견을 말하지 않고 일심동체가 되었습니다. 손실이나 위험 부담이 전혀 없는 일이란 흔하지 않습니다. 중요한 문제를 해결하려면 때로는 모험을 감행할 필요도 있습니다.

그들은 드디어 기상천외한 행동을 감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지붕위로 운반했습니다. 당시의 서민 가옥은 대개 흙벽돌로 지었습니다. 흙벽돌은 진흙으로 만들어 햇볕에 말린 것입니다. 지붕을 덮기 위해서는 먼저 벽에서 벽까지 튼튼한 대들보를 가로지르고 갈대를 놓은 다음 마른 풀로 덮었습니다. 그 위에 진흙과 모래와 자갈을 섞어 덮고 굴림대 돌로 평평하게 다졌습니다. 그 위에 기와를 덮기도 하였습니다. 따라서 지붕은 일종의 평평한 옥상으로서 밖으로 나있는 계단을 통해 올라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 지붕은 다목적용이었습니다. 곡식이나 과일을 말리는 장소로 사용되었습니다. 다락방을 들이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러한 가옥 구조를 생각해 볼 때 그 사람들이 중풍병자가 누운 침상을 지붕 위까지 운반하는 것은 무척 힘든 일이었지만 그리 위험하거나 불가능한 일은 아니었습니다.

위태한 작업은 그 다음부터입니다. 그들은 예수님 계신 곳을 어림잡아 지붕을 뜯기 시작했습니다. 아무리 조심스럽게 작업을 한다고 하여도 그 방안에 있는 사람들이 어떤 상황에 처했을 것인가는 상상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요란한 소리와 함께 지푸라기와 흙먼지가 쏟아진 것은 말할 것 없고, 예수님뿐 아니라 제자들이 이러한 흙먼지를 뽀얗게 덮어쓰게 되었습니다. 그 집의 주인이 마리아인지 베드로인지 혹은 다른 제자인지 알 수 없습니다. 다만 사람이 누운 침상을 그대로 달아 내릴 정도로 지붕을 뜯었으니 그 집 주인의 심정이 어떠했을 것인가를 짐작하기 어렵지 않습니다. 기이한 것은 아무도 그들의 작업을 꾸짖거나 만류하지 아니하였다는 것과 예수님이 동요하지 않고 그 집안에 그대로 계셨다는 사실입니다.

드디어 지붕이 뚫려졌습니다. 지붕 위의 네 사람은 “맛게 뚫렸다. 이만하면 되겠다. 자 침상을 달아 내리자.”라고 말했습니다. 그들이 달아 내리는 것은 침상만이 아니라 그 위에 누운 중풍병자까지였습니다. 완벽하게 균형을 맞추어 내려야 합니다. 자칫 실수하면 중풍병자를 떨어뜨려 죽게 할 수도 있습니다. 병 고치려다가 사람 잡는 일이 생길지도 모를 일입니다. 지붕 위의 네 사람이 침상의 네 모서리에 줄을 단단히 맨 다음 드디어 침상을 아래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드디어 보조를 맞추어 서서히 줄을 늦추며 침상을 아래로 내리기 시작했습니다. 그들의 얼굴은 상기되었고 이마에 맺힌 땀방울이 아래로 똑똑 떨어져 내렸습니다. 집안에 있는 사람들의 시선이 일제히 뚫어진 천장과 침상을 달아 내리는 네 사람에게 집중된 것은 물론입니다.

서슴없이 나서는 기질을 가진 베드로나 성격이 불칼 같은 요한과 야고보도 이들의 저돌적 행동에 너무 어이가 없었는지 말이 없었습니다. 무례하기 짝이 없는 이 사람들의 행동을 예수께서 그냥 지켜보고 계셨기 때문일 수 있습니다. 예수님의 얼굴에 미소가 슬쩍 스쳐가는 것을 보았을지도 모릅니다. 이런 기발하고 막가는 행동에 대하여 모두 기막힌 듯한 표정으로 쳐다보는 중에 드디어 침상이 방바닥에 살며시 내려졌습니다. “이 사람아, 아무리 병이 중한 상태이고 낫기를 갈망한다 하여도 이렇게까지 무례하게 행동해서야 되겠는가!” 예수께서 최소한 이런 책망 정도는 하실 것이라고 제자들은 생각했을 터이지만 오히려 예수님은 그들이 예상치 못한 말씀을 하셨습니다.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다.”

그 자리에는 예수님에 대하여 기대와 호의를 가진 사람들만 모인 것이 아니었습니다. 갈릴리 각 촌과 유대와 예루살렘에서 나온 바리새인과 교법사들이 자리를 차지하고 있었습니다. 이들은 예수님에 대하여 매우 적대적인 사람들입니다. 그들이 각처에서 이렇게 온 것을 보면 유대사회의 최고의회인 산헤드린에서 파송된 듯합니다. 산헤드린은 예루살렘에 있으며, 유대인들에게는 최고 중앙 재판소로서의 권위를 지니고 있었습니다. 예루살렘의 시정(市政)과 종교적 가르침, 치안의 확립, 성전 내에서의 각종 업무에 대한 지도에 있어서 중심적인 권위를 행사하였습니다. 소송에 대한 재판권이 로마 당국에 의해 상당히 제한되었기 때문에 사형권은 없었습니다. 그러나 율법을 범한 사안에 대해서는 독보적인 권위를 행사하였습니다. 산헤드린의 구성원들은 주로 제사장 가문 출신과 그 당시 서기관들로 이루어졌습니다. 서기관을 교법사라고도 부르는데 이들은 대부분 바리새파에 속해 있었습니다. 서기관은 율법 교사이면서 해석자입니다. 율법과 전통의 모든 규칙과 규례들을 잘 알고 있는 율법 전문가들입니다. 그들이 이 자리에 참석한 이유는 예수님의 언행을 예의주시하여 율법을 어기는 것을 책잡고 산헤드린에 보고하려는 것입니다.

그들은 예수님이 중풍병자에게 “이 사람아 네 죄 사함을 받았다.” 하시는 말씀을 듣고 경악했습니다. 서기관과 바리새인들이 수군거리기 시작하며 말했습니다. “하나님을 모독하는 이 사람이 누구인가? 하나님 한 분외에 누가 죄를 용서할 수 있단 말인가?” 사실 그렇습니다. 예수님이 보통 사람이었다면 그들의 생각이 조금도 지나칠 것 없습니다. 신성모독에 해당되는 말입니다. 신성모독 자는 돌로 쳐서 죽이도록 율법에 명시되어 있습니다. 스테반 집사를 돌로 쳐 죽인 자들도 거짓 증인을 세워 스테반 집사를 신성모독 죄로 정죄하였습니다. 지금 경악하는 그들은 율법과 전통에 대한 전문적 지식을 가진 성경학자였지만 예수님이 하나님의 독생자이며 메시아라는 사실을 알아보지 못했습니다. 참으로 기이한 일입니다. 성경에 대한 지식이 많아도 성령의 가르침을 받지 못하면 예수님을 구세주로 알지 못합니다. 예수님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을 깨닫지 못합니다.

그러니 예수님을 적대하는 마음을 가진 서기관들에게는 중풍병자를 향해 선포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신성모독의 말로 판단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을 책잡게 될 좋은 구실을 찾았기 때문에 내심으로 기뻐했을 것입니다.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이러한 마음을 꿰뚫어 보시고 “너희가 마음속으로 무엇을 생각하느냐? ‘네 죄가 용서되었다.’라고 말하는 것과 ‘일어나서 걸어가라.’라고 말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쉽겠느냐?”라고 그들에게 말씀 하셨습니다. 죄 사함을 받은 것은 즉시 눈에 보이는 현상이 없습니다. 중풍병자가 일어나 걸어가는 것은 당장 눈에 보입니다. 사실여부가 즉시 확인됩니다. “일어나서 걸어가라.”한 다음에는 과연 그렇게 되는지 아닌지는 곧장 판명이 납니다. 이런 면에서 보면 사람들 앞에서 중풍병자에게 “네 죄 사함을 받았다.”하는 것은 “일어나서 걸어가라.”하는 것보다 쉬운 일입니다.

이어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답변을 기다리지 아니하시고, 그 질문의 목적을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나 인자가 땅에서 죄를 용서하는 권세를 가지고 있음을 너희가 알도록 하겠다.” 하였습니다. 그리고는 중풍병자를 향하여 “내가 네게 말하니, 일어나서 네 상을 가지고 집으로 가라.” 하셨습니다. 그러자 중풍병자가 즉시 일어나 그가 지금까지 누웠던 들것을 가지고 걸어 나갔습니다. 들것에 의해 운반되어 온 자가 도리어 그 들것을 운반하는 자가 되었습니다. 멋있고 감동적인 모습입니다. 그가 들것에 누워

집안으로 들어오려고 했을 때는 한 치의 양보도 없던 사람들이 그가 예수님으로 말미암아 죄 사함과 병 고침을 받아 나갈 때는 일제히 비켜서서 길을 열어 놓았습니다. 중풍병자는 개선장군처럼 그들 가운데로 걸어 나갔습니다. 썩은 나무동치처럼 들것에 담겨있던 중풍병자가 예수님의 말씀 한 마디에 용수철에 튕긴 것처럼 순간적으로 별떡 일어나서 걸어갔습니다. 들것에 실려 온 자가 도리어 들것을 들들 말아서 척 둘러메고 힘차게 걸어 나가는 모습을 본 서기관들은 할 말이 없었습니다. “소자야 네 죄 사함을 받았다.”하신 예수님의 말씀이 신성모독의 말이 될 수 없음이 여실하게 증명되었습니다. 예수님에게 죄 사하는 권세가 있음이 그들의 눈앞에서 실제로 증명되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예수님을 비난했다가는 도리어 그들이 무리들에게 맞을 지경이 된 것입니다. 그 곳에 모인 사람들은 모두 충격적인 놀라움과 황홀한 두려움을 느꼈습니다. 그리고 일제히 하나님께 영광을 돌렸습니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하나님의 임재를 느꼈습니다.

지금까지 살펴본 내용 가운데 중풍병자를 누운 침상을 운반하여 온 네 사람의 헌신과 협동이 우리에게 교훈하는 메시지를 좀 더 말씀드리겠습니다. 중풍병자를 예수님에 의하여 치유 받도록 하기 위해 네 사람이 마음을 같이하여 협력하는 광경은 매우 감동적입니다. 시사하는 바가 많습니다. 사도 바울은 빌립보 교인들에게 보내는 글에서 “내가 유오디아를 권하고 순두게를 권하노니 주 안에서 같은 마음을 품으라”(빌 4:2)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말씀하시기를 “진실로 다시 너희에게 이르노니 너희 중에 두 사람이 땅에서 합심하여 무엇이든지 구하면 하늘에 계신 내 아버지께서 저희를 위하여 이루게 하시리라 두세 사람이 내 이름으로 모인 곳에는 나도 그들 중에 있느니라”(마 18:19,20) 하였습니다.

예수께서 승천하시기 전에 감람산에 모인 사람들에게 분부하시기를 “예루살렘을 떠나지 말고 내게 들은 바 아버지의 약속하신 것을 기다리라 요한은 물로 세례를 베풀었으나 너희는 몇 날이 못 되어 성령으로 세례를 받으리라.” 하였습니다. 그들은 예루살렘의 한 집의 다락방에 모여 성령강림을 기다리며 기도했습니다. 이에 관하여 기록되기를 “들어가 저희 유하는 다락에 올라가니 베드로, 요한, 야고보, 안드레와 빌립, 도마와 바들로매, 마태와 및 알패오의 아들 야고보, 셀롯인 시몬, 야고보의 아들 유다가 다 거기 있어 여자들과 예수의 모친 마리아와 예수의 아우들로 더불어 마음을 같이하여 전히 기도에 힘쓰니라”(행 1:13,14) 하였습니다. 이 모든 말씀의 공통점은 사람들이 주님을 향하여 같은 마음을 품고 협력하는 모습은 하나님의 보시기에 좋고 아름답다는 사실입니다. 그리고 주님께서 관심 깊게 보시며 응답과 도움을 베푸신다는 사실입니다.

다른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볼까 하는 생각을 누구나 마땅히 해야 합니다. 그러나 사람의 판단과 평가에 지나치게 마음 쓰지 말아야 합니다. 그 사람들이 어떠한 사람인가를 고려해야 합니다. 반드시 우리가 유념해야 할 것은 주님께서 어떻게 보실까 하는 것입니다.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고 기쁜 마음으로 주시하신다면 더 바랄 것 없습니다. 본문에 기록된 사건은 네 사람이 주님의 인자와 능력을 신뢰하는 마음으로 중풍병자를 위하여 일심으로 협동하는 모습에 주님께서 관심을 가지시고 기쁘게 여기신 사실을 극적으로 보여주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천장에서 쏟아지는 흙먼지를 뒤집어쓰고도 동요하지 않고 침상을 달아 내리는 사람들을 관심 깊게 바라보시는 주님의 모습을 여러분의 심령에 각인하십시오. 이를 상기하므로 감동과 위로와 용기를 얻게 되시기를 바랍니다.